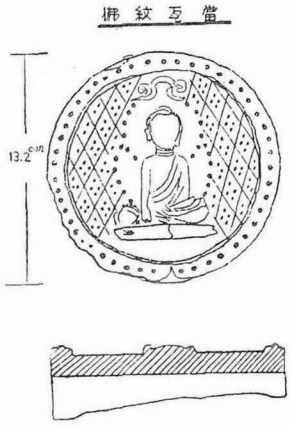
佛像紋瓦當一例

朴 日 薰

一九六四年 六月 大邱에 있는 日人 小倉武之助가 居住하던 家屋 마루밑에 秘藏되었든 各種 文化財가 發見되어 紙上에 報道된 바 있었다。이들 各樣 各色의 遺物中에 貴重한 新羅瓦塼의 數도 많았지만 其中 가장 異彩를 띤 것은 圓瓦 一點이었다。

瓦當은 灰色 堅質로 燒成되었고 周緣에는 蔿珠紋이 弱하게 點列된 中央에는 荷葉座위에 結跏趺座한 如來坐像이 正坐하고 있는 像을 配置하였다。頭部는 剃髮하고 肉髻는 分明하나 顔面은 擦過傷을 입은듯 鼻目이 明瞭치 않고 兩耳는 길게 내려왔고 목에는 三道가 있다。法衣는 右肩偏袒으로 衣紋은 重厚한 주름이 單麗하다。觸地降魔印을 한 兩指端이 희미하다。光背는 丹形을 點列線으로 表現하였고 頂部에는 飛雲紋을 뚜렷이 놓았다。餘白部分은 斜格線을 그려 格間마다 四花를 넣었다。



新羅時代 瓦塼 紋儀의 種類는 多種 多樣이였지만 佛塼①以外에 瓦當에 佛像을 配置한 例는 至極히 注目된다。此種의 瓦紋이 이제 처음 紹介된 例라 하겠지만 瓦工이 瞬間的인 作意에 依하여 만들어진② 것이 아니고 瓦范에 依하여 多量의 生産을 目標로 하여 生産한 것이다。그러나 出土地가 어딘지 알 수 없어 遺憾이다。

本瓦當의 크기는 普通型이고 瓦質과 燒成의 色調와 周緣의 蓮珠紋은 新羅瓦當의 命脈을 이었으나 弱하게 退化된 點 圓面의 空白에 斜格線에 四花를 配置한 意匠 等을 보아 新羅末期 또는 高麗初期의 作品으로 斟酌된다。

註

① 佛塼이 出土된 例는 다음과 같다。
蔚山農所面中山里廢寺址 慶州錫杖寺址 慶州三郎寺址 慶州仁容寺址 淸道佛靈寺址。

② 瞬間的 作意에 依한 瓦當의 例로 慶州興輪寺址出土 人面瓦가 있다。

公州 百濟王宮 및 臨流閣址 小考

金 永 培

百濟의 中興王都로서 六十餘年間 繼續되며 흩어진 國力을 바로잡고 百濟文化의 기틀을 닦아서 마침내 泗沘의 燦爛한 文化를 꽃피우고 나아가서는 日本 飛鳥文化의 根源이 되는 熊川王都의 宮城址가 어느 곳이였는지 얼른 推定을 나릴 수도 없고 이렇다 할만한 根據를 잡지 못하여 못내 아쉬운 마음 간절하였다。그런데 오래前부터 注目되던 곳에서 百濟特徵을 지닌 礎石이 發見되어 어렴풋이나마 考證의 資料를 얻게 되었으므로 기쁜마음에서 參考에 供코자하는 바이다。熊川王宮址에 對하여는 그저 推想的으로 意見을 말한 輕部慈恩氏가 있는데 그의 著書인 忠南鄕土誌에서 現在 公山城의 最高地帶인 光復樓의 西南方 土城下의 若干 平平한 地帶가 推定될 것 같다고 하였다。그러나 筆者는 도무지 首肯이 가지를 않으니 그 理由인즉 前記地點이 平坦하기는 하나 王宮을 山上에까지 올려다가 定할 수 없다는 것과 아무리 百濟가 小國일 망정 不過 二百坪도 못되는 곳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끝으로 其他點에서는 아무런 根據될 만한 遺構가 남아 있지 않은것 등이다。그러면 다음에 拙見을 적어보기